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연운열의
푸드톡톡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점심의 국수 한 그릇, 간식으로 빵과 과자 한 봉지. 설탕과 밀가루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다. 그런데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한다. 이유는 늘 비슷하다. 가격담합 의혹이다. 국내 설탕과 밀가루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70% 이상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구조다. 이런 시장구조 하에서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소비자의 시선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설탕과 밀가루 제조업체들은 여러 차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과징금도 부과됐다. 그런데도 비슷한 논란은 반복된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원재료 가격과 완제품 가격 사이의 괴리다. 국제 원당 가격이 떨어지고, 밀값이 내려가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반대로 국제 시세가 오를 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다.

과점 시장에서는 명시적인 담합이 없어도 ‘눈치 게임’이 가능하다. 누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따라간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니 담합이 아니지만, 소비자가 보기에는 너무 정교한 우연처럼 보인다. 문제는 하방 경직성이다. 원당 가격이나 밀값이 오를 때는 즉각 반영되지만, 내려갈 때는 조용하다. 기업은 재고, 환율, 인건비 같은 이유를 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정위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담합을 막는 것보다, 담합이 필요 없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은 단순한 생활물가를 넘어 국민건강과도 직결돼 있다. 설탕 섭취증가는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국내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설탕세’ 또한 국민 정서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국은 당류 함량이 높은 음료에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했고, 그 결과 제조사들은 경쟁하듯 당을 줄였다.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기업의 레시피를 바꾼 것이다.

밀가루도 마찬가지다. ‘글루텐 프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밀가루가 마치 건강의 적처럼 취급되지만, 정작 국내에서 글루텐이 문제 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부족하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비싼 대체식품이 넘쳐난다. 이 역시 시장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이 만든 병폐다. 결국 설탕과 밀가루가 문제라기보다, 가격을 둘러싼 구조와 제도가 문제다.

원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 반복되는 담합 의혹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제도, 그리고 건강 문제와 가격 정책이 따로 노는 정책 환경이 맞물려 있다. 해법은 단순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과점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설탕세와 같은 건강 연계 가격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그 위에 얹혀있는 가격과 구조가 문제이고 그 구조를 오래 방치해 온 우리의 무관심이다.

/식품기술사·푸드테크 칼럼니스트

오늘의 운세 2월 10일 (음 12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60년생 어려움을 이기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외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49년생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습니다. 61년생 주변사람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73년생 언론이나 해외관련 일에 좋은 소득이 있습니다. 85년생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50년생 이동수가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62년생 기회를 잡기 위해선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74년생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하루입니다. 86년생 좋은 일이 생겨도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51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극복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힘들겠지만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75년생 계속 노력하면 곧 좋은 일이 생깁니다. 87년생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2년생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64년생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76년생 서두르기보다는 느긋한 대처가 더 필요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53년생 원래 목표대로 계속 정진하세요. 65년생 결정이나 약속은 오후가 좋습니다. 77년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89년생 주위에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받게 됩니다.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55년생 친구를 만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67년생 재물운이 있으니 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79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91년생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실행과 추진력이 더 필요합니다.



56년생 작은 거래는 취하고 큰 거래는 신중하세요. 68년생 덕을 베풀면 오히려 큰 도움을 받습니다. 80년생 주변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92년생 내 생각보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는게 길합니다.



57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뒤로 미루세요. 69년생 그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81년생 일이 잘 안 풀릴땐 그냥 쉬는 것도 좋습니다. 93년생 지나친 기대보다는 내실이 필요합니다.



58년생 인연운이 있으니 낯선 이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70년생 변화를 모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2년생 작은 이익을 양보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9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59년생 쉽게 부탁을 들어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71년생 자만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내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습니다. 95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소리장도, 웃음 뒤의 칼



중국 병법 36계 가운데 소리장도笑裏藏刀 전략,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 이 말은 상대를 속이거나 방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계략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삶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세상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의 말과 표정 태도는 언제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관점은 사주팔자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같다. 팔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그 이면에 흐르는 구조와 기운을 읽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지금 어떤 흐름 속에 놓여있는가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으로 보고 말투가 부드러우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표정이 무뚝뚝하면 차갑다고 단정한다.

시주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과 속으로 작동하는 기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향적으로 밝아 보여도 내면은 예민할 수 있고, 조용해 보여도 속은 강단 있는 경우가 많다. 명리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때로는 감정을 숨기거나 한발 물러서야 할 때도 있다. 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드러내는 것이 좋고, 운이 약하거나 충돌이 많은 시기에는 조용히 힘을 비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는 표현을 자기 보호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36계의 소리장도와 명리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사람은 한 가지 얼굴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웃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만 듣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조언이다.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자신의 운의 흐름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소리장도와 팔자학이 함께 건네는 지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 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851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 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955 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